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변 은 실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5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t검증,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한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거부민감성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남학생의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거부분노민감성만이 부분매개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분노민감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부불안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이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분노민감성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136-71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Tel : 02-940-4498, Fax : 02-940-4490, E-mail : jylee7694@dongduk.ac.kr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공격성(Loeber & Stouthamer-Loeber, 1998)의 문제는 최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선생님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어 충격을 주었다(서울신문 2016. 01. 12). 이와 같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공격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문제는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으며 그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시작되는 공격성은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나 비행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문제행동 및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내적인 증상이 추가되는 내재적 문제의 전조증상으로 또래 거부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며(Coie & Dodge, 1998) 부모나 형제들과 논쟁을 하고,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교를 중퇴하는 등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Dodge, 1986). 이처럼 아동기에 시작되는 공격성은 청소년의 비행과 품행장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범죄로 이어지며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Moffitt, Caspi, Harrington & Milne, 2002). 또한 공격적인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Tremblay, 2000), 아동의 공격성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공격성의 개념은 학자와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분류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Little, Jones, Henrich & Hawley, 2003; Ostrov & Crick, 2007; Marsee & Frick, 2007). 먼저 기능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반응적 공격성이란 지각된 위협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방어적인 공격적 행동을 말하며,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Dodge & Coie, 1987). 다음으로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으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공격적 행동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또래 간 관계를 조작하고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특히,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아동기 후기와 초기 청소년기에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격성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해 왔기 때문에 남아에게서 공격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여아의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Crick, 1995, 1996).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와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연구한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 남아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고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아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Henington, Hughes, Cavell & Thomson, 1998). 또한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에(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높았지만 관계적 공격

성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김민정, 도현심, 2001; 박민정, 최보가, 2001; 박영신, 2005; 현지은, 2010; Loukas, Paulos & Robinson, 2005)도 있었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서 우세한 공격성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거나 혹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관계적 공격성은 초기 청소년기(11-12세)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Loeber & Hay, 1997).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녀 모두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김미정, 2006; 노선애, 2011; 이영화, 김경연, 2012; 정재영, 2013; 한동현, 2012). Bowlby(1980)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의 초기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해하게 되며, 대인관계의 각본이 되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부모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인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Sedlak & Broadhurst, 1996)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보이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학대는 아동의 낮은 자존감, 주의 산만함, 우울, 과잉행동, 공격성, 위축행동, 대인관계 성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8; 문제화, 2009; 박미란, 2003; 박민

정, 최보가, 2001; 신혜영, 최해림, 2003; 이은주, 1999; 임연진, 이은혜, 2000; 최은희, 2001). 이 중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주요한 문제는 공격성과 우울이며(강지영, 2002; 김은경, 2008; 안동현, 2003; 장화정, 1990),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성인기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상희, 서수균, 2015; 송구술, 2010; 조은정, 2004).

보건복지부(2012)에 따르면, 학대의 유형은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고, 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14.6%로 신체적 학대 7.2%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무관심하고, 거부적 태도를 보이며, 일탈 행위에 대해 방관하고(Szur, 1988),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학대의 형태(Steele, 1980)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고, 양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관상의 피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Kaplan, Pelcovitz & Labruma, 1999).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성적 학대만큼 장기적 및 단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가 다른 형태의 학대보다 장기적인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고성혜, 1992;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특히,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보다 언어적 학대가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연진영, 1991),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을 예언하는 변인이었다(김양미, 2000; 문제화, 2009). 또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반항-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란, 2003). 또한 정서적 학대는 처음에는 경미한 경멸적, 거부적 언어의 사용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가 높아져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Cook & Bowles, 1980; Murphy & O'Leary, 1989).

그러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모두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문상희와 서수균(2015)은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는 제 3의 개인내적 요인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요인으로써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는 경험으로 인해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애착이론과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다(Downey & Feldman, 1994). 거부민감성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더 잘 지각하며 거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당했을 때 과잉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경향성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와 Feldman(1994)은 거부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불안과 분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거부를 지각할 때 불안과 분노 이외에도 우울이라는 인지-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박지윤, 정영숙, 2008). 즉, 아동기 초기에 거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거부에 민감해져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거부를 예상하게 된다. 거부민감성은 예상되

는 거부에 대해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거부불안민감성,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거부분노민감성 그리고 거부에 대해 우울하게 반응하는 거부우울민감성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아동기 초기의 거부 경험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애착과 거부민감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박소연, 2013; 유고은, 방희정, 2011; 이정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수정, 2013; 장미희, 2010; Natarajan, Sonasundaram & Sundaram, 2011; Petherick & Zimmer-Gembeck, 2006)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학대는 실제적인 거부를 수반하는 경험(Chango et al., 2012; 홍상황, 박혜정, 2013에서 재인용)이며, Downey와 Feldman(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가정 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은 거부민감성이 높고 성인 애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상황 등(2013)과 황은수와 성영혜(2006)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거부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타인에게서 거부당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수용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아동의 거부민감성은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 감소를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w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거부분노민감성과 거부불안민감성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높은 거부분노민감성은 분노, 공격성과 같은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거부불안민감성은 사회적 불안, 위축, 회피, 우울과 같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Zimmer-Gembeck & Nesdale, 2013). 최근 연구에서도 거부분노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과 분노, 공격성을 유발하고,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침묵하고 친절과 타협적인으로 반응하면서 공격성은 감소되었다(Croft & Zimmer-Gembeck, 2014). 또한 높은 거부분노민감성과 거부를 또래의 탓으로 돌리는 초기 청소년들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반면 높은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에 대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 - Gembeck, Nesdale, Webb, Khatibi & Downey, 2016).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분노민감성과 거부불안민감성의 고유한 영향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부불안민감성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설명한다는 연구(홍상환 등, 2013)와 거부불안민감성이 또래괴롭힘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이외에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 개입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부우울민감성까지도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일관되게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유고은 등, 2011; Ayduk et al., 2000; Downey et al., 1996; Erozkhan, 2009),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들에 대한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들에서 성차가 있다면 이는

공격성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상담 및 개입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확인하고,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각각이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병렬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들의 고유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남, 녀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583명에게 연구 동의를 얻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5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565명 중 남자는 280명(49.6%), 여자는 285명(50.4%)이었다. 연구 대상의 학년은 5학년 289명(51.2%), 6학년 276명(48.8%)으로 연령은 12세와 13세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수준은 상 25명(4.4%), 중상 111명(19.6%), 중 294명(52%), 중하 68명(12%), 하 17명(3%)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일반 가정 486명(86.0%), 이혼가정은 54명(9.6%), 기타가정은 24명(4.2%)으로 여기에는 별거가정 11명(1.9%)과 재혼가정 5명(0.9%), 다문화가정 8명(1.4%)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도구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를 신혜영과 최해림(2003)이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의 3개 하위요인의 2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9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한 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다.

거부민감성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의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이하 CRSQ)를 이경숙 등(2000)이 번안한 후, 박지윤(2004)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12개의 상황을 선정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는 원문의 'You'가 '나', '나', '네'로 비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우리 상황에 보다 익숙한 표현인 '나'로 일관성 있게 수정한 손은경(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관련 상황 4가지와 또래관련 상황 8가지로 총 1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상황에 대해 거부예상불안, 거부예상분노, 거부예상우울, 거부예상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가지 상황 중 하나를 예로 들

면, "같은 반에 있는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내가 그 아이를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라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곧 무슨 말을 하실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 궁금해진다."의 상황에 대해 '선생님이 누구의 말을 믿을까? 생각하며 기다릴 때 나는,' A. 불안하다. B. 화가 난다. C. 우울하다. D.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나의 말을 믿어줄까?(예상정도)와 같은 4개의 문항이 제시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평정된다. 각 상황 마다 구성된 4개의 문항 모두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상황 5, 7, 10의 거부예상정도는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12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결과에 대한 예상정서(불안, 분노, 우울)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예상정도를 측정한 후, 각 상황에서 거부에 대한 예상정서(불안, 분노, 우울)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예상정도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즉, 거부불안민감성(거부예상불안 \times 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민감성(거부예상분노 \times 거부예상정도), 거부우울민감성(거부예상우울 \times 거부예상정도)의 3가지 점수가 계산된다. 거부민감성 각 하위요인의 점수 범위는 1-36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거부불안민감성 .92, 거부분노민감성 .89, 거부우울민감성 .92로 나타났다.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s와

Frick(2004)이 제작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이하 PCS)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차원을 포함하여 반응적, 주도적,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의 4개의 차원이 각각 10문항씩 총 4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확실히 그렇다(3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4개의 차원으로 세분화 하지 않고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외현적 공격성 .89, 관계적 공격성 .84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과 AMOS 21.0을 통해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을 모두 매개변인으로 포함하

는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각각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프로그램 PROCESS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고(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1을 보면, 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t=2.32, p<.05$)와 외현적 공격성($t=4.86, p<.00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거부민감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1, p<.01$).

표 2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민감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r=.431, p<.01$) 및 관계적 공격성($r=.433, p<.01$)간의 상관이 높았다. 거부민감성의 하위 요인들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거부분노민감성이 남녀 모두에서 외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N=565)

측정변인	하위변인	남자(n=280)	여자(n=285)	t
		M(SD)	M(SD)	
정서적 학대		11.20(3.66)	10.53(3.22)	2.32*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	25.42(6.27)	23.12(4.90)	4.86***
	관계적 공격성	24.54(4.69)	24.19(4.40)	0.914
거부민감성	거부불안민감성	64.98(41.87)	78.80(52.18)	-3.47**
	거부분노민감성	60.49(36.68)	68.52(45.73)	-2.31*
	거부우울민감성	52.30(34.40)	61.71(45.22)	-2.79**
	전체	177.77(107.40)	209.02(137.47)	-3.01**

*p<.05, **p<.01, ***p<.001

표 2. 정서적 학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 간 상관관계

	정서적 학대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거부 불안 민감성	거부 분노 민감성	거부 우울 민감성	거부 민감성
정서적 학대		.203**	.206**	.171**	.249**	.229**	.223**
외현적 공격성	.431**		.748**	.285**	.358**	.330**	.336**
관계적 공격성	.433**	.743**		.311**	.347**	.322**	.339**
거부불안 민감성	.250**	.326**	.276**		.864**	.878**	.956**
거부분노 민감성	.285**	.446**	.393**	.862**		.913**	.961**
거부우울 민감성	.220**	.321**	.338**	.829**	.879**		.966**
거부민감성	.265**	.382**	.350**	.950**	.959**	.944**	

**p<.01

주. 대각선 아래=남자, 위= 여자

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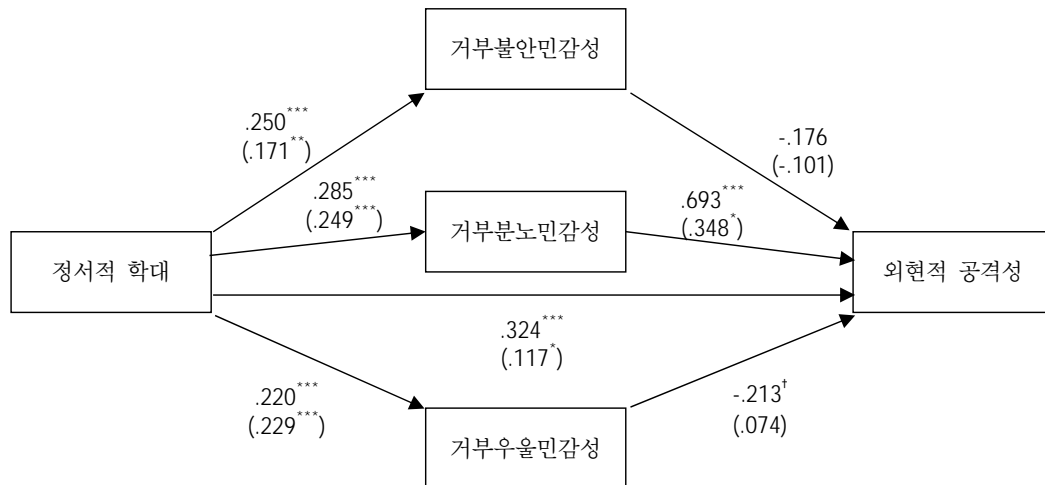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하위변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주요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 시 남녀를 따로 분석하였다. 정서적 학대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3.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외현적 공격성간의 경로계수

관계변인	남학생(<i>n</i> =280)				여학생(<i>n</i> =285)			
	<i>B</i>	β	S.E.	C.R.	<i>B</i>	β	S.E.	C.R.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민감성	2.852***	.250	.663	4.305	2.766**	.171	.948	2.918
정서적 학대 → 거부분노민감성	2.850***	.285	.575	4.960	3.536***	.249	.817	4.329
정서적 학대 → 거부우울민감성	2.061***	.220	.548	3.758	3.224***	.229	.812	3.973
정서적 학대 → 외현적 공격성	0.554***	.324	.088	6.287	0.178*	.117	.087	2.049
거부불안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026	-.176	.015	-1.727	-0.009	-.101	.011	-0.828
거부분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118***	.693	.021	5.739	0.037*	.348	.015	2.431
거부우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039 [†]	-.213	.020	-1.97	0.008	.074	.016	0.494

[†] *p*=.05, **p*<.05, ***p*<.01, ****p*<.001



[†] *p*=.05, **p*<.05, ***p*<.01, ****p*<.001.

주. 표준화계수 제시, 괄호는 여자

그림 1.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병렬매개모형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정서적 학대가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불안민감성($\beta=.250, p<.001$), 거부분노민감성($\beta=.285, p<.001$), 거부우울민감성($\beta=.220, p<.0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가 거부불안민감성($\beta=.171, p<.01$), 거부분노민감성($\beta=.249, p<.001$), 거부우울민감성($\beta=.229, p<.0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들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의 경우, 거부불안민감성($\beta= .176, ns$)은 외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부분노민감성이 높을수

록 외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beta=.693, p<.001$), 거부우울민감성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213, p=.05$). 반면 여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중 거부분노민감성만이 외현적 공격성($\beta=.384, p<.05$)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학대는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324, p<.001, \beta=.117, p<.05$).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하위변인인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각각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프로그램 PROCESS에서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결

표 4.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거부민감성 하위변인들의 간접 효과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B	SE	하한선	상한선
남학생(n=280)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75	.052	-.195 .011
정서적 학대	→	거부분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337	.114	.153 .616
정서적 학대	→	거부우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80	.063	-.247 .041
여학생(n=285)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26	.033	-.119 .020
정서적 학대	→	거부분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131	.063	.042 .300
정서적 학대	→	거부우울민감성	→	외현적 공격성	.025	.052	-.065 .146

Bootstrap = 10000

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우울민감성의 간접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분노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B=.337$, 95% 신뢰구간= .153, .616).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우울민감성의 간접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고, 거부분노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131$, 95% 신뢰구간= .042, .300).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모두 거부분노민감성이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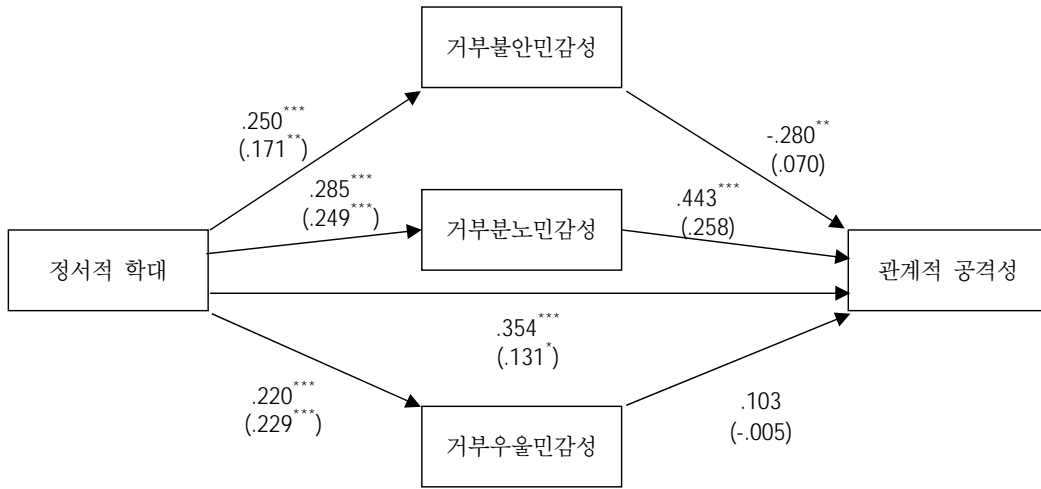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과 그림 2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학대는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거부불안민감성(각각 $\beta=.250$, $p<.001$, $\beta=.171$, $p<.01$), 거부분노민감성(각각 $\beta=.285$, $p<.001$, $\beta=.249$, $p<.001$), 거부우울민감성(각각 $\beta=.220$, $p<.001$, $\beta=.229$, $p<.0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들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의 경우,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감소하고($\beta=-.280$ $p<.01$), 거부분노민감성이

표 5.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간의 경로계수

관계변인	남학생(n=280)				여학생(n=285)			
	B	β	S.E.	C.R.	B	β	S.E.	C.R.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민감성	2.852***	.250	.663	4.305	2.76**	.171	.948	2.918
정서적 학대 → 거부분노민감성	2.850***	.285	.575	4.960	3.53***	.249	.817	4.329
정서적 학대 → 거부우울민감성	2.061***	.220	.548	3.758	3.24***	.229	.812	3.973
정서적 학대 → 관계적 공격성	0.453***	.354	.068	6.678	0.179*	.131	.078	2.285
거부불안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0.031**	-.280	.012	-2.675	-0.006	.070	.010	0.573
거부분노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0.057***	.443	.016	3.570	0.025	.258	.014	1.796
거부우울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0.014	.103	.015	0.926	0.000	-.005	.015	-0.030

* $p<.05$, ** $p<.01$, *** $p<.001$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준화계수 제시, 괄호는 여자

그림 2.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병렬매개모형

표 6. 남학생의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거부민감성 하위변인들의 간접 효과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B	SE	하한선	상한선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089	.050	-.210	-.011
정서적 학대	→	거부분노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161	.063	.058	.310
정서적 학대	→	거부우울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029	.041	-.035	.137

Bootstrap = 10000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beta = .443$, $p < .001$). 그러나 거부우울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3$, ns).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여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의 3개 하위요인은 정서적 학

대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학대는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354$, $p < .001$, $\beta = .131$, $p < .05$).

표 6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

성($B = -.089$, 95% 신뢰구간 = $-.210, -.011$)과 거부분노민감성($B = .161$, 95% 신뢰구간 = $.058, .310$)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는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분노민감성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우울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29$, 95% 신뢰구간 = $-.035, .13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였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정서적 성향인 거부민감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박미란(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아들이 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김민정 등, 2001; 문경주, 오경자, 2002;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Barber, 1996)와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남원희, 현은강, 2003)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조심성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언어적인 학대를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여 남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관계적 공격성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송성미, 2001; 신미숙, 1997; 이경희, 1998; 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6)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동기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나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한다(김민정 등, 2001; 박영신, 2005; 현지은, 2010; Loukas et al., 2005; Roecker, 2001; Rys & Bear, 1997).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는 학령기 초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son & Gariep, 1989; 박민정, 최보가, 2004에서 재인용)와 외현적 공격성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감소되거나 안정적이지만 관계적 공격성은 초기 청소년기(11-12)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Loeber et al., 1997)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학령기 초기에는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높고 남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초등 학교 5, 6학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현적 공격성의 수준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성차는 남아있는 시기로 남학생들의 신체적인 공격행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증가하는 시기인데,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

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더 이상 여학생에게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남학생들 역시 여학생들만큼이나 또래들의 관계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관계를 조작하기 위한 이간질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남학생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걸음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 보다는 아동 스스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이라고 믿는(Werner & Hill, 2010)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간접적으로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관계적 공격성이 여학생들의 관계적 공격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후속 연구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부민감성에서도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거부민감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유고은 등, 2011; Ayduk et al., 2000; Downey et al., 1996; Erozkhan, 2009).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Hoffmann & Su, 1998; Patton, Coffey, Posterion, Carlin, & Bowes, 2003; Silberg, Rutter, Neale, & Eaves, 2001) 모호한 상황에서도 거부를 더 쉽게 거부에 의한 부정적 정서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거부민감성(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양미, 2000; 문상희, 서수균, 2015; 문재화, 2009; 장조현, 2004)과 일치한다. 즉,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환경요인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와 거부민감성(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역시 남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대경험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홍상환 등, 2013; Downey et al., 1996)과 일치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제외한 정서적 학대만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황은수 등(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주양육자로부터의 반복된 거부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박소연, 2013; 이경숙 등, 2000; 이수정, 2013; 장미희, 2010; Erozkhan, 2009). 즉,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형태의 정서적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동들은 거부를 쉽게 지각하고 과잉 반응하는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부민감성(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과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남녀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면 타인의 모호한 행동을 의도적인 거부로 인식하여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며(강은영, 2013;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Downey et al., 2000), 실제 거부를 경험

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Romero-Canyas, Downey, Bernson, Ayduk & Jan Kang, 2010).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로 귀인하여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는 홍상황과 이경연(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정서적 학대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의 하위변인들을 각각 따로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되면 나머지 2개의 하위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각 하위변인 고유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각각의 고유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분노민감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가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부분노민감성을 매개로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분노민감성이 매개한다는 결과는 10-14세 아동들의 높은 거부분노민감성이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과 분노,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Croft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거부분노민감성이 높으면 논쟁, 공격성과 같은 싸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London et al., 2007) 및 거부분노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1년 후에도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owney et al., 1998)와도 일치한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우울민감성은 남학생의 외현적 공

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부민감성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거부불안민감성과 거부분노민감성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는 거부우울민감성의 고유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의 3개 하위요인들을 모두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병렬매개모형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거부분노민감성만을 매개로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거부분노민감성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분노민감성만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거부분노민감성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Downey et al., 1998; London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는 거부분노민감성만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노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서적 학대 경험을 가진 남학생과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분노민감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거부분노민감성과 거부불안민감성이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거

부분노민감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반면 거부불안민감성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지만 높은 거부불안민감성은 오히려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억제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불안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불안민감성이 매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부불안민감성의 경우, Croft 등(2014)의 연구에서 10-14세 아동의 높은 거부불안민감성은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또래들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자신의 욕구에 대해 침묵하고 친절과 타협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반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거부가 지각되면 사회적 불안, 위축, 우울과 같은 도망반응을 유발한다는 해외 연구(London et al., 2007) 이외에도 거부불안민감성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홍상환 등, 2013)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으면 거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어 오히려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래 관계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거부민감성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며, 거부불안민감성은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차별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여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불안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거부민감성 각 하위요인의 고유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느 하나의 하위요인만으로는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는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정적 정서 상태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재차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정서적 학대 경험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라는 개인내적 요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불안민감성이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불안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신체적 학대에 비해 연구가 미비했던 정서적 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정서적 학대는 거부민감성이라는 개인 내적인 요인은 물론 외현적 문제행동인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정

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반복 검증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거부민감성이라는 아동의 인지-정서적 성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적인 정서적 학대경험이 개인 내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높은 거부민감성을 교정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아동의 공격성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존의 인지행동적 심리치료들은 주로 아동의 분노 조절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Lochman, Powell, Whidby & FitzGerald, 2012)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거부민감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모호한 상황을 거부로 인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거부가 의도된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인지 재구조화 전략이 집중 적용된다면 정서적 학대 경험 아동들이 지니는 거부민감성을 교정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거부민감성의 총점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하위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각 하위변인간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 각각의 고유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분노민감성이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

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거부민감성 중에서도 거부분노민감성에 초점을 둔 개입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거부가 예상될 때 분노라는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부분노민감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부가 예상될 때의 감정에 집중하고, 분노라는 정서를 이해하고, 분노를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거부분노민감성과 거부불안민감성이 매개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별로는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논의한대로 여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의 특정한 하위요인만으로는 정서적 학대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는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정적 정서 상태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제 3의 매개변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부민감성을 다루는 경우, 여학생에 대해서는 거부로 인해 야기되는 포괄적인 부정적 정서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개입을 시행하는 한편 남학생은 거부분노민감성을 교정할 수 있는 보다 초점화된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의 양상이 비슷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정서적 학대의 수준이 높지 않고 학대 경험에서의 개인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로 인해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공격성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의 제 3자의 보고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간에는 .7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둘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은영 (2013).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지영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족 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정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2(2), 149-166

김양미 (2000).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억제 의 매개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원희, 현은강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체벌실태와 아동의 분노표현. 아동과 권리, 7(2), 1-16

노선애 (2011).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문상희, 서수균 (2015).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6), 485-504
- 문재화 (2009). 아동의 유형별 학대경험이 행동 문제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 (2003).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최보가 (2001). 아동학대 및 학교에서의 폭력경험과 아동의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05-118.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8
- 박영신 (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김향은 (200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12(3), 275-286.
- 박소연 (2013). 아동의 부모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2004).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보건복지부 (201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서울신문 (2016. 01. 12). 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 때리고 욕설.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2500190>에서 2016, 04, 20 자료 얻음.
- 손은경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구술 (2010).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미 (2001). 청소년의 공격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문제와 학교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숙 (1997).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차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최혜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안동현 (2003).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175-222.
- 연진영 (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 1-125.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52-61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경희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13). 모애착, 거부민감성,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51-73.
- 이영화, 김경연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2), 1-10.
- 이은주 (1999).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적응 및 또래 수용도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연진, 이은혜 (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장미희 (2010).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조현 (2004).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정 (1990).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영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개념과 또래지각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1). 부모의 아동학대와 정서적 부정적 행동간의 관계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동현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은 (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상황, 박혜정 (2013).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4(2), 59-74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67-84.
- 홍상황, 이경연(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F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a loss*(Vol. 3). New York: Basic Books.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 Fergusson, L. L., & Gariep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320-330
- Chango, J. M., McElhane, K. B., Allen, J. P., Megan M.,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3), 369 - 379.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ook, J. V., & Bowles, R. T. (1980). *Child abuse: Commission and omission*. Toronto: Butterworths.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Psychology, 7*(2), 313-32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oft, C. D., & Zimmer-Gembeck, M. J. (2014). Friendship Conflict, Conflict Responses, and Instability: Unique Links to Anxious and Angry Form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0272431613518972*.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K. (2000). Adolescent onset of gender differences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8, pp. 77-125).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wney, G. &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2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Freitas, A.,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 gender, and parenting sty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1-14.
- Hayes,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enington, C., Hughes, J. N. M., Cavell, T. A., & Thomson, B. (1998).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identifying boys and girl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4), 457-477.
- Hoffmann, J. P., & Su, S. S. (1998).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pression: Conditional and gender differentiated effects. *Substance Use & Misuses, 33*(11), 2219-2262.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r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s of the past 10years. Part I: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Lochman, J. E., Powell, N. R., Whidby, J. M., & FitzGerald, D. P. (2012). Aggression in Children. In P. C. Kendall (Ed.),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pp. 27-6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oeber, R., & Stouthamer-Lo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L.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rsee M. A., & Kimon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to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offitt, T. E., Caspi, A., Harrington, H., & Milne, B. J.(2002). Males on th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Follow-up at age 26.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1), 179-207.
- Murphy, C. & O' Leary, D. K. (1989).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579-582.
- Natarajan, G., Sonasundaram, C. P., & Sundaram, K. R. (2011).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studies-University of Calicut, 56(4), 378-386.
- Ostrov, J. M., & Crick, N. R. (2007).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Review*, 36(1), 22-43.
- Patton, G. C., Coffey, C., Posterior, M., Carlin, J. B., & Bowes, G. (2003). Life events and early onset depression: cause or consequence?. *Psychological Medicine*, 33(7), 1203-1210
- Petherick, J., & Zimmer-Gembeck, M. J. (2006). Attachment patterns during year 12: Psychological symptoms, rejection sensitivity, loneliness, social competence, and support as correlates of stability and change. *Australia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3(2), 65-86.
- Roecker Phelps, C. E. (2001). Children's responses to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0(2), 240-252.
- Romero-Canyas, R., Downey, G., Bernson, K., Ayduk, O., & Jan Kang, N.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Rys, G. S., & Bear, G. G.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1), 87-106
- Sedlak, A. J., & Broadhurst, D. D. (1996). The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ilberg, J., Rutter, M., Neale, M., & Eaves, L. (2001). Genetic moderation of environmental risk for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 gir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2), 116-121
- Steele, B. (1980). *Psychodynamic factors in child abuse*. In Helfer, R. E., & Kempe, R. S.(Eds.), *The Battered Child* (3rd ed), 49-87.
- Straus, M. A.(1979). Stress and child abuse. In R. Helfer & C. H. Kempe(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 University Chicago Press.
- Szur, R. (1988).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Mather (Ed.), *Child abuse*. Oxford: Basil Blackwell.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erner, N. E., & Hill, L. G. (2010). Individual and peer group normative beliefs about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1(3), 826-836.
- Zimmer-Gembeck, M. J., & Nesdale, D. (2013). Anxious and angry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retribution in high and low ambiguous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81(1), 29-38.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doi:10.1007/s10802-016-0127-y.

원 고 접 수 일 : 2016. 05.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30

게 재 결 정 일 : 2016. 10. 30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by Gender

Eun-Sil Byun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RS). A data of 565 5th and 6th grade students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gender differences appeared in the major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al aggression. While boys' emotional abuse and overt agg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girls, 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emotional abuse,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RS. Among the three RS forms including anxiety, angry, and depression, only angry RS partially mediated a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overt aggression in both boys and gir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relational aggression, angry and anxiety RS had significant mediation effects where anxiety RS inhibited boys' relational aggression. No mediation effect was found for girl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 Emotional Abuse,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Angry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